



# 개요

영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다.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성상 영어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사업가, 경영자, 연구원, 공무원, 교사, 프로그래머, 비서, 학생 등 어떤 직종의 사람에게도 영어 능력은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이다. 문자가 생긴 이래 영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필수 요소가 된 언어는 없다. 영어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역시 부정할 수 없다.

EF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시험한 결과를 분석해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 EPI) 에 담았다. 여기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 영어는 개인의 경제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력에도 필수 요소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영어 실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도 높고, 수출량도 많고, 사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영어 실력이 좋으면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 외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사용한다.
-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습계획과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영어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세-35세 사이 직장인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일터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등교육만 마친 경우는 사회나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광이나 컨설팅처럼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업종의 영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자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업종은 더 낮은 영어 실력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의 영어 실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몇몇 유럽 국가는 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영어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못하며, 영어가 공용어인 아시아 국가의 영어 실력도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일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은 교육에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영어 실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영어권 국가로 이민가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민 전에 일반적인 학습능력과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는지와 이민 후에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2 년 EF EPI (영어 능력 지수)

## ■ 우수

랭킹	나라	EF EPI 점수
1	■ 스웨덴	68.91
2	■ 덴마크	67.96
3	■ 네덜란드	66.32
4	■ 핀란드	64.37
5	■ 노르웨이	6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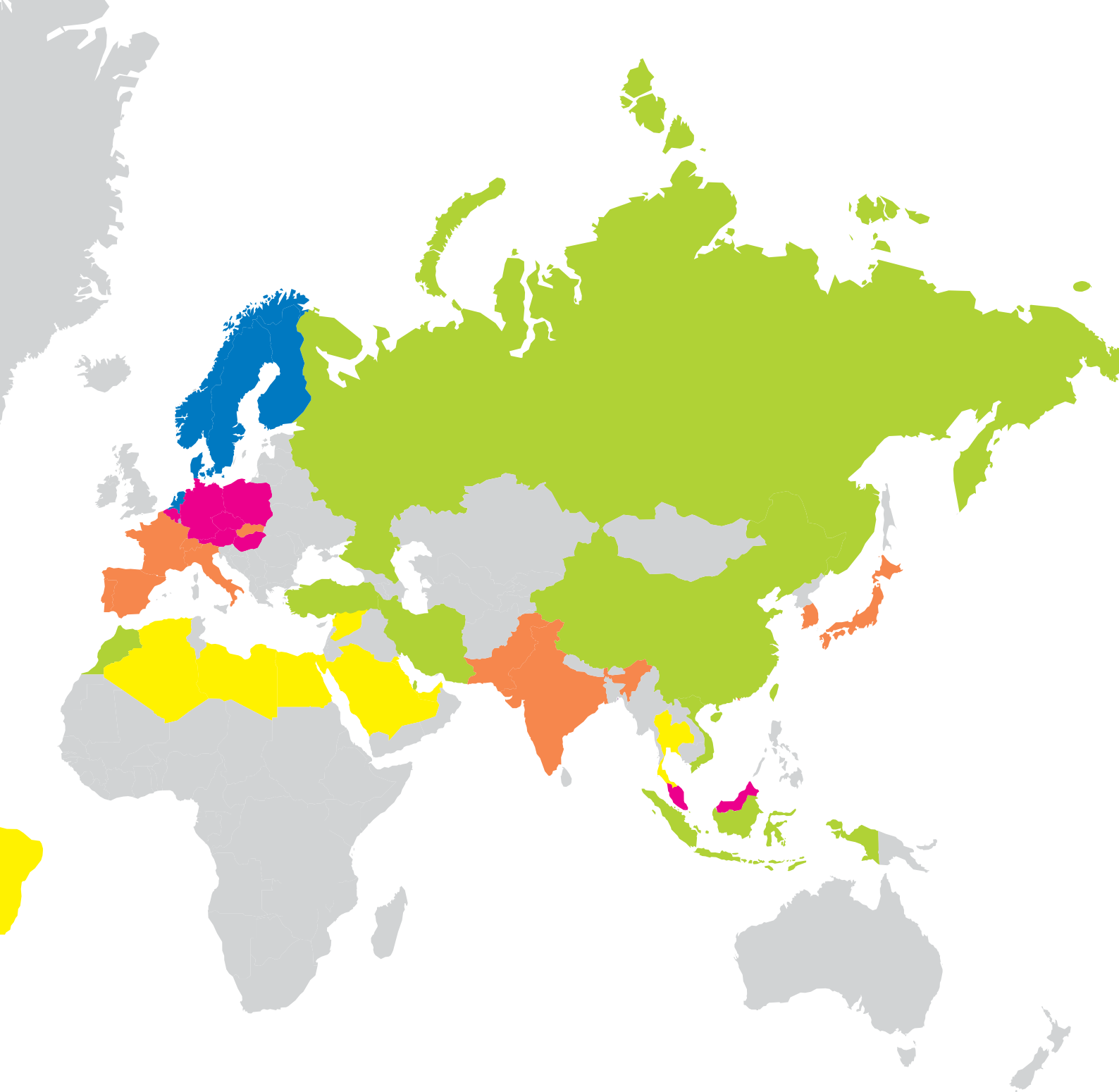
## ■ 양호

랭킹	나라	EF EPI 점수
6	■ 벨기에	62.46
7	■ 오스트리아	62.14
8	■ 폴란드	60.39
9	■ 헝가리	60.07
10	■ 독일	59.08
11	■ 체코	58.90
12	■ 싱가포르*	58.65
13	■ 말레이시아*	57.95

## ■ 보통

랭킹	나라	EF EPI 점수
14	■ 인도*	57.49
15	■ 스위스	57.39
16	■ 슬로바키아	56.62
17	■ 파키스탄*	56.03
18	■ 스페인	55.89
19	■ 포르투갈	55.39
20	■ 아르헨티나	55.38
21	■ 대한민국	55.35
22	■ 일본	55.14
23	■ 프랑스	54.28
24	■ 이탈리아	54.01
25	■ 홍콩*	53.65

\*영어 공용어인 나라



**■ 미흡**

**■ 불량**

랭킹	나라	EF EPI 점수	랭킹	나라	EF EPI 점수	랭킹	나라	EF EPI 점수
26	우루과이	53.42	39	칠레	48.41	51	파나마	44.68
27	인도네시아	53.31	40	베네수엘라	47.50	52	사우디 아라비아	44.60
28	이란	52.92	41	엘 살바도르	47.31	53	태국	44.36
29	러시아	52.78	42	시리아	47.22	54	리비아	42.53
30	대만	52.42	43	에콰도르	47.19			
31	베트남	52.14	44	알제리	47.13			
32	터키	51.19	45	쿠웨이트	47.01			
33	페루	50.55	46	브라질	46.86			
34	코스타리카	50.15	47	과테말라	46.66			
35	모로코	49.40	48	이집트	45.92			
36	중국	49.00	49	아랍에미리트	45.53			
37	카타르	48.79	50	콜롬비아	45.07			
38	멕시코	48.60						



SYDNEY

# 머리말

## 전세계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들의 경우, 의무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출석률이 높아지고,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 점차 더 저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추세를 보인다. 대학의 경우, 영어를 졸업요건 중 하나로 추가시키는가 하면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교과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이외에, 영어 사교육 부문 역시 호황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혹은 직장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영어 공부를 한다. 취업 준비생은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 영어 학원에 등록하도록 권장받으며, 공공 부문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달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원어민과 접할 기회도 많아졌다. British Council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20억 명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영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우고 있는가?

전세계 곳곳에서 영어교육에 엄청난 시간, 돈, 정열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관계자는 영어가 일차적으로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육 또는 시험 방식은 유창성보다는 문법적 정확성이나 암기 등을 강조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구식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실력있는 영어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의 원어민교사를 영입하거나 자격 미달의 교사를 고용해 효과없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영어교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변화를 이끌어야 진정한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인 영어 능력 측정

이런 맥락에서 EF는 2011년에 표준화된 측정방안으로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 EPI) 를 만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나라별로 실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인들의 영어 실력을 조사해 평가하였다. 이는 각기 다른나라 성인의 평균 영어실력을 비교해 알아보는 최초의 지표이다.

EF EPI 제2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세계 각지 17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 조사한 결과로, 최초로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직급별로 나눠 조사했으며 영어권국가 이민자의 영어실력도 포함하였다. EF EPI의 모든 조사결과와 국가별 개요, 기업들을 위한 특별자료인 EF EPIc는 <http://www.ef.com/epi/>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F EPI가 앞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이 영어나 언어 교육에 관한 정책을 만들거나 연구, 논의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준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20년에는  
전세계에서 약 20억  
명이 영어를 배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2년 EF EPI는  
세계 54개국  
성인의 영어 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 영어 불균등 현상

올해 조사된 54개국의 영어 능력 지수는 세계 각국의 각기 다른 영어 실력 현황을 보여준다.

## 성별, 업종별, 연령별 영어 능력 차이

이번 EF EPI는 처음으로 영어 능력 시험을 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아 인구통계식으로 표시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부터 각 연령층의 차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직장인 10만명의 영어 능력도 평가해 업종과 직업에 따른 영어 능력 차이도 볼 수 있다.

인접 국가나, 무역 상대국 또는 협력국가들 사이의 영어능력차이를 비교해보면 국가마다 영어 교육 정책이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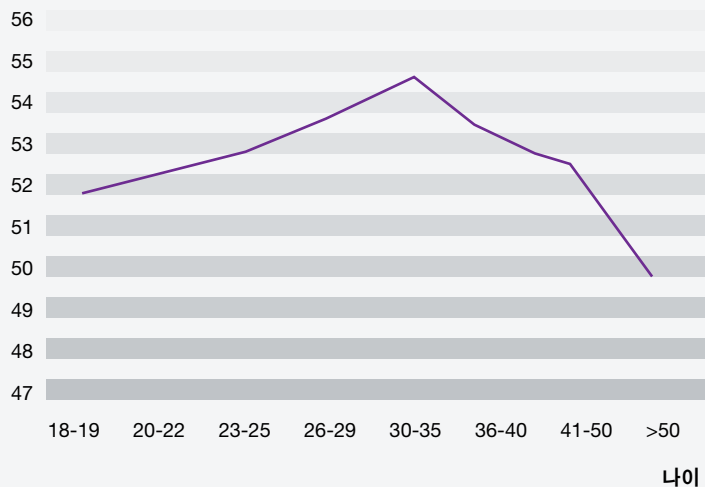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는, 인종별, 국가별 영어 능력 차이 외에도 각 나라 안에서도 실력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어 능력이 낮은 몇몇 국가의 직장인들은 높은 영어 능력을 보여주며, 영어 능력이 높은 몇몇 국가의 여러 직종들은 영어 능력이 떨어진다. 몇몇 예외국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직장인에 미치지 못하며, 임원보다 중간관리층의 사원이 영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국가나 회사, 또는 개인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세대별 영어 능력 차이

**청장년층의 영어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수년간의 학교 영어 교육을 갓 마친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장 좋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조사 결과 영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연령대는,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직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장에서 일과 관련하여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어실력이 점차 더욱 강화된다.

중년층의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세대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영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던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후배들 보다 영어 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PI 점수







## 성별 격차 현상

### 여성의 영어실력이 남성보다 높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영어 실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특히 영어가 필수적인 인문학 계열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인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나라의 경우에는, 남성이 경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성별간 영어 실력 차이가 가장 뚜렷한 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여성이 남성보다 5점 이상 훨씬 높았다.

여성

EF EPI 점수

**53.90**

남성

EF EPI 점수

**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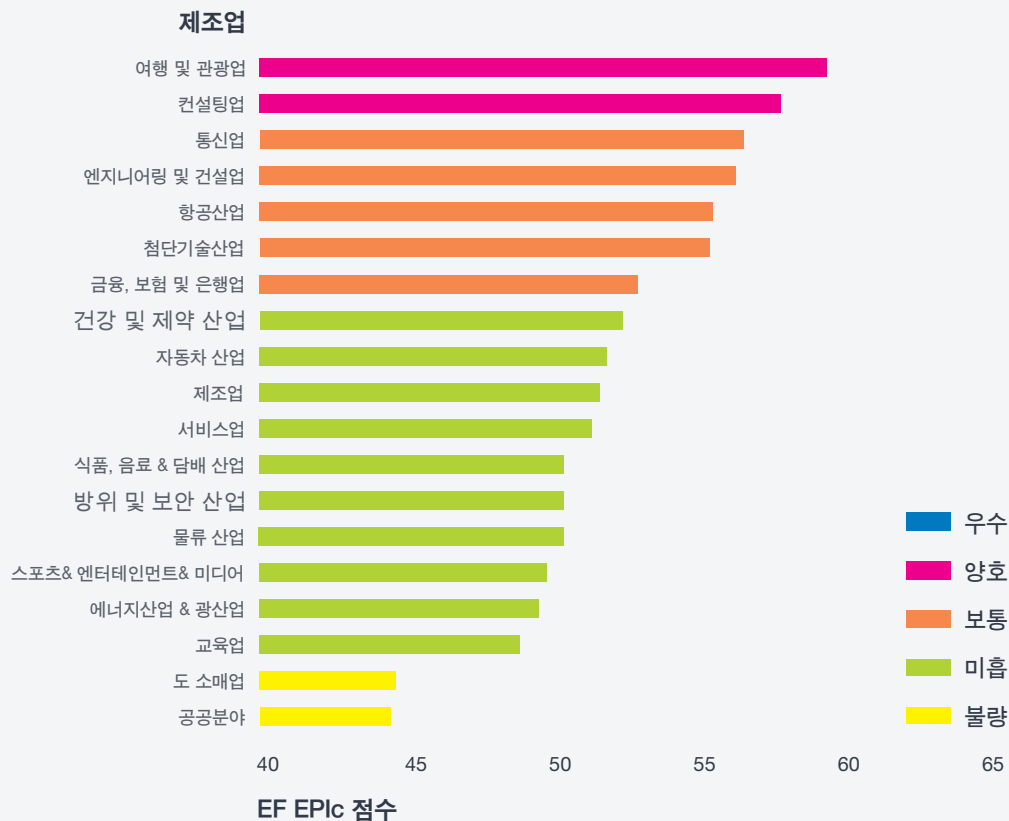
# 산업 분야별 영어 능력

국제화된 산업 분야에서는 영어가 사용되고 국내 산업에서는 영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산업 분야별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보면 여행, 관광, 컨설팅 등 가장 국제적인 활동이 두드러지는 분야의 영어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교육, 공공분야, 소매업 등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은 영어 능력이 취약하다.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각 나라의 정부들은 공무원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10% 정도가 정부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들 공무원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 성인 영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용 EF 영어 능력 Index



각 나라 성인들의 산업분야별, 직급별 영어 능력에 대한 비교분석은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for Companies (EF EPIc)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www.ef.com/epi/](http://www.ef.com/epi/)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오늘날의 영어교육

다국적기업 사원 중 절반이 회사에서 영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한다.

## 외국어로써 영어의 중요성

오래전부터 제2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엘리트층의 특권이였다. 대영제국의 팽창과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력의 확산으로 불어를 대신해 영어가 엘리트층의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친 세계화, 현대화, 도시화 및 인터넷의 발달은 영어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이제 영어는 더 이상 엘리트층의 전유물이나 경제적인 특권이 아니다. 지난 이백년동안 읽고 쓰는 능력이 엘리트층의 특권에서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탈바꿈했듯이, 영어는 오늘날 모든 노동인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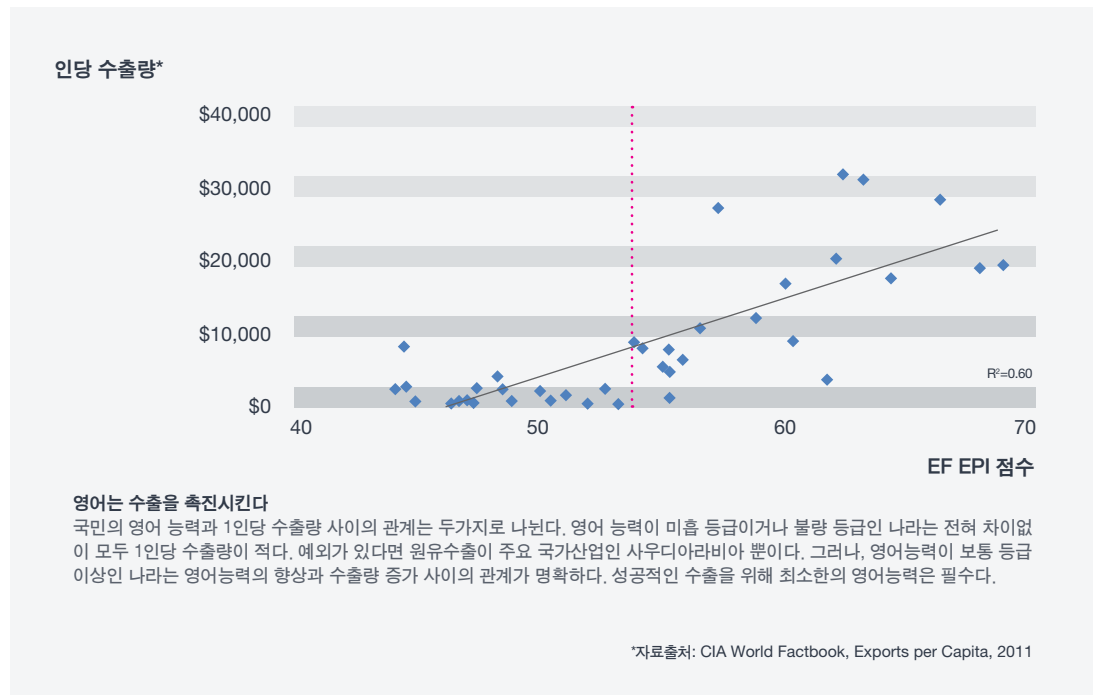
## 세계화가 영어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Global English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국적기업 직원 2만 6천 명 중 55%가 직장에서 매일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4%에 불과했다.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되었다. 심지어 여러가지 지역적, 부족적인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통 소통 수단이 영어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사실상 공용어로 인식되는 영어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는 영어가 필수적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모두 영어를 잘한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두 수출 중심의 경제라는 뜻은 아니다. 영어 능력이 높은 몇몇 나라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영어는 단지 수출 중심 경제의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영어 능력이 있으면 기업혁신, 고객과의 소통, 인재 채용에 큰 힘이 되고 수출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인프라, 정부규제, 세금, 천연자원 등 높은 수출량과 연관된 다른 요소들은 영어 능력과 무관하다.







## 영어와 경제발전

영어 능력과  
총국민소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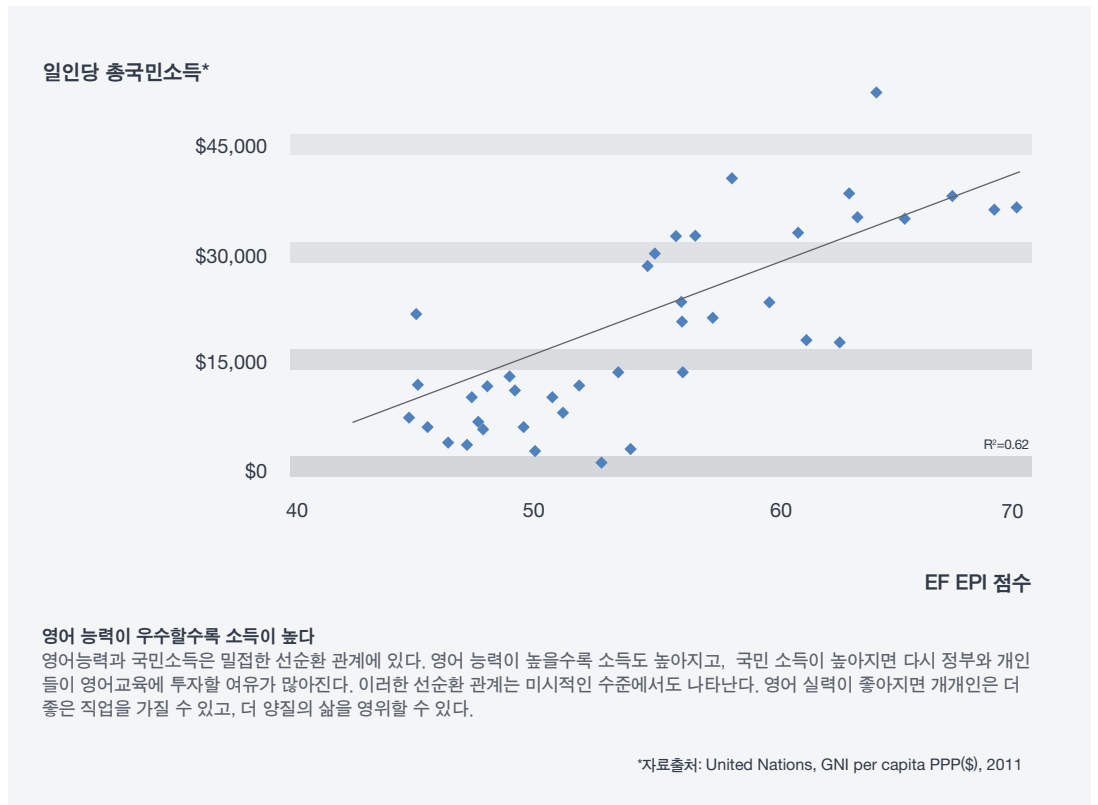
### 개인 수익력과 영어

외교, 번역 등의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영어 능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필요하다. 전세계의 인사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면으로는 비슷한 능력을 가졌으나 영어능력이 없는 다른 후보자보다 약 30-50% 이상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급여가 높은 한편, 영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놓치기도 쉽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임원의 70%가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영어를 알아야 한다고 답했고, 임원의 25%는 전체 직원 중 영어 능력을 갖춘 직원이 50% 이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영어는 취업에 필수 조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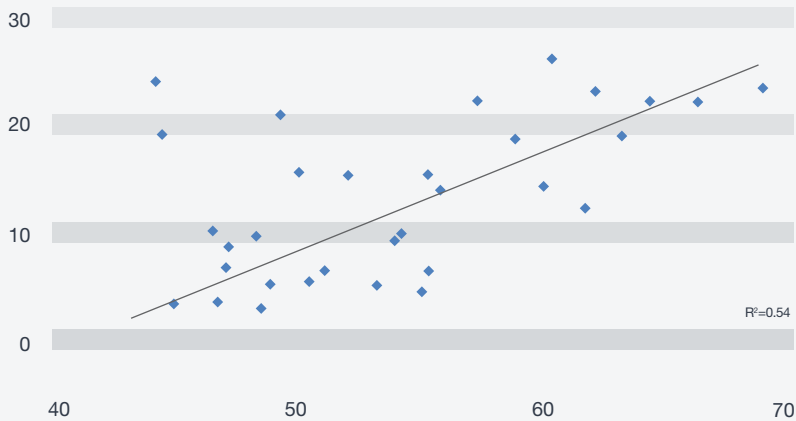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영어는 필수다

미국이나 영국 회사가 자기 사업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할 때 비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영어능력이다. 선진국의 아웃소싱 붐에 동참하려는 개발도상국은 영어 능력이 뛰어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나라 경제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수출이 늘면 중산층이 많아져 소비량이 증가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자연히, 오늘날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영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며 다른 과목 수업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영어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GDP 비율)\*



EF EPI 점수

국제적인 서비스업이 발달한 경제는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

나라 경제가 제조업과 1차산업에 집중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콜센터나 IT 지원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용역을 선진국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과 영어능력의 밀접한 상관관계로 인해, 이러한 개발도상국이 국민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면 나라 경제에 구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자료출처: World Bank, 2010. GDP 가치로 나눈 서비스업 수출입 총계. 미국달러 기준

## 영어로 비즈니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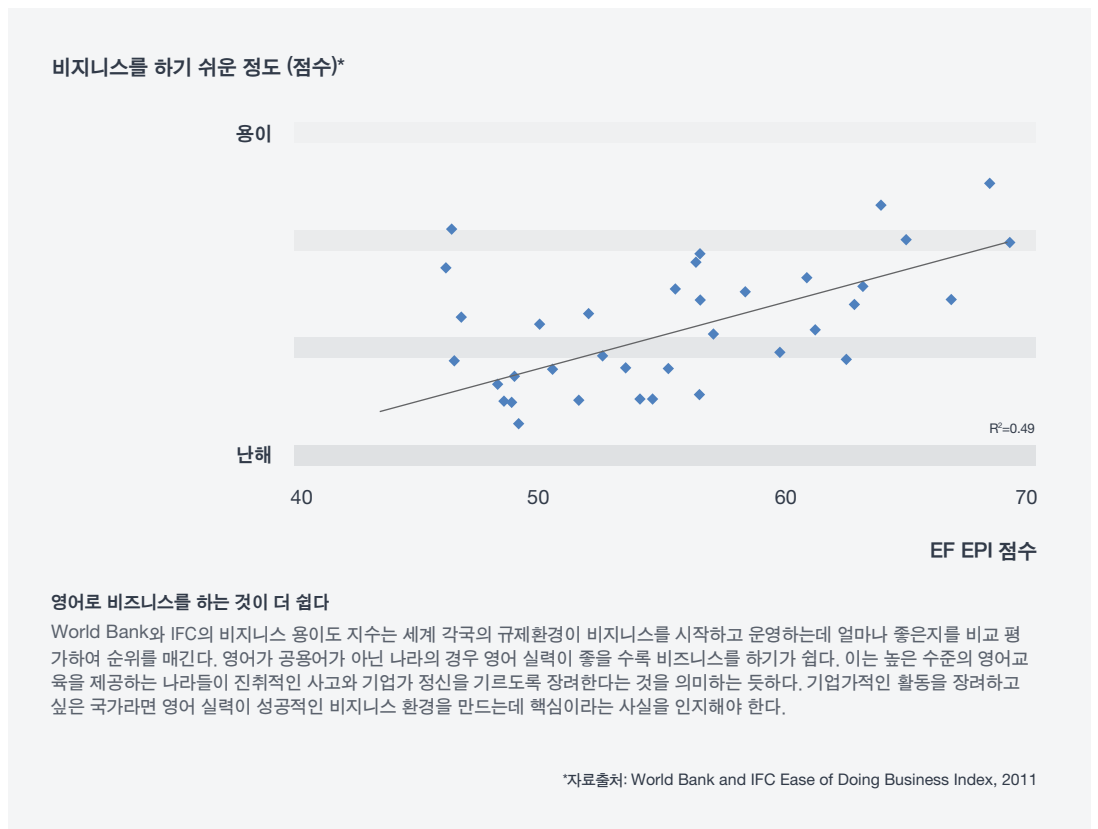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 회사 공식언어로서의 영어

흔히 영어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한다. 비즈니스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영어가 필수인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Nokia, SAP, Samsung, Aventis, Renault 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였다.

2010년, 일본 최대의 온라인 마켓인 Rakuten 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였다. 하버드 대학 Tsedal Neely 교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런 야심찬 변화의 목표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Rakuten 의 분명한 목표는 국제무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내 일과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언어장벽때문에 생기는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해외 인수 합병 후의 회사간 통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다. 한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정책을 회사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직원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빠른 시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과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아직 저조한 기간동안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Rakuten 이 영어를 회사 공식 언어로 바뀌어가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 들여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임직원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이런 변화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렇기는 해도 수많은 기업 임원은 영어가 회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매일 일터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또 그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Social Media  
 EVERYDAY (Tell people in the class) <sup>ALL</sup>

1. Facebook
  - Share publicly on our Walls <sup>ALL</sup>
  - Direct private messages / COHOR <sup>ALL</sup>
  - Key people (NGOs/Professors) <sup>ALL</sup>
2. YouTube/Vimeo <sup>add VC link to voting</sup>
  - TV Ads <sup>Chico</sup>
3. Internal Campaigns
  - Flyers (Dma)
4. Twitter <sup>ALL</sup>
5. Blogs → link to key people <sup>ALL</sup>
6. LinkedIn @ profile page <sup>ALL</sup>



## 영어는 혁신을 확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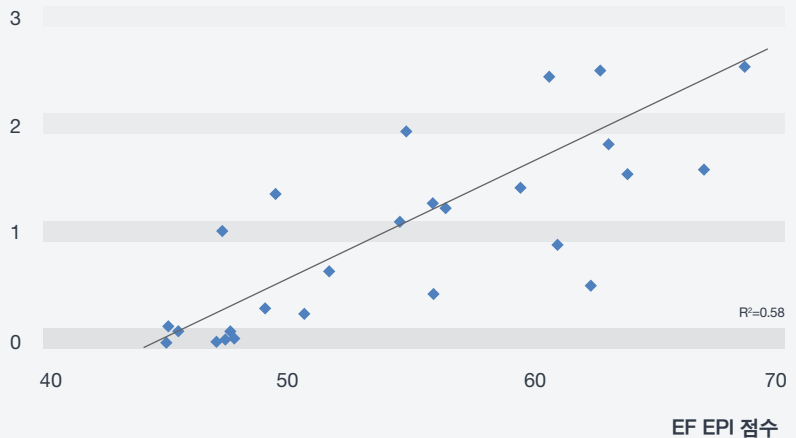
발표되는 과학기사 중 35%는 각기 다른나라 출신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간의 공동연구나 기술공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학자와 기술자간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다. 미국의 연구원들이 매년 가장 많은 과학논문을 발표하며 중국 다음으로 영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두번째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지만 과학 학술지에서 인용되는 것은 전체 발표물의 4%뿐이다. 1위를 차지한 미국은 30%, 3위를 기록한 영국은 8%가 인용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구결과들이 세계 지식 경제에는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국가간 공동연구 실적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2011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 중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공동연구한 것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의 50%이상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자국의 기술자나 과학자들의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다른나라의 연구발표를 접하기 어렵고, 국제적인 혁신에 기여할 수 없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혁신은 영어가 이끌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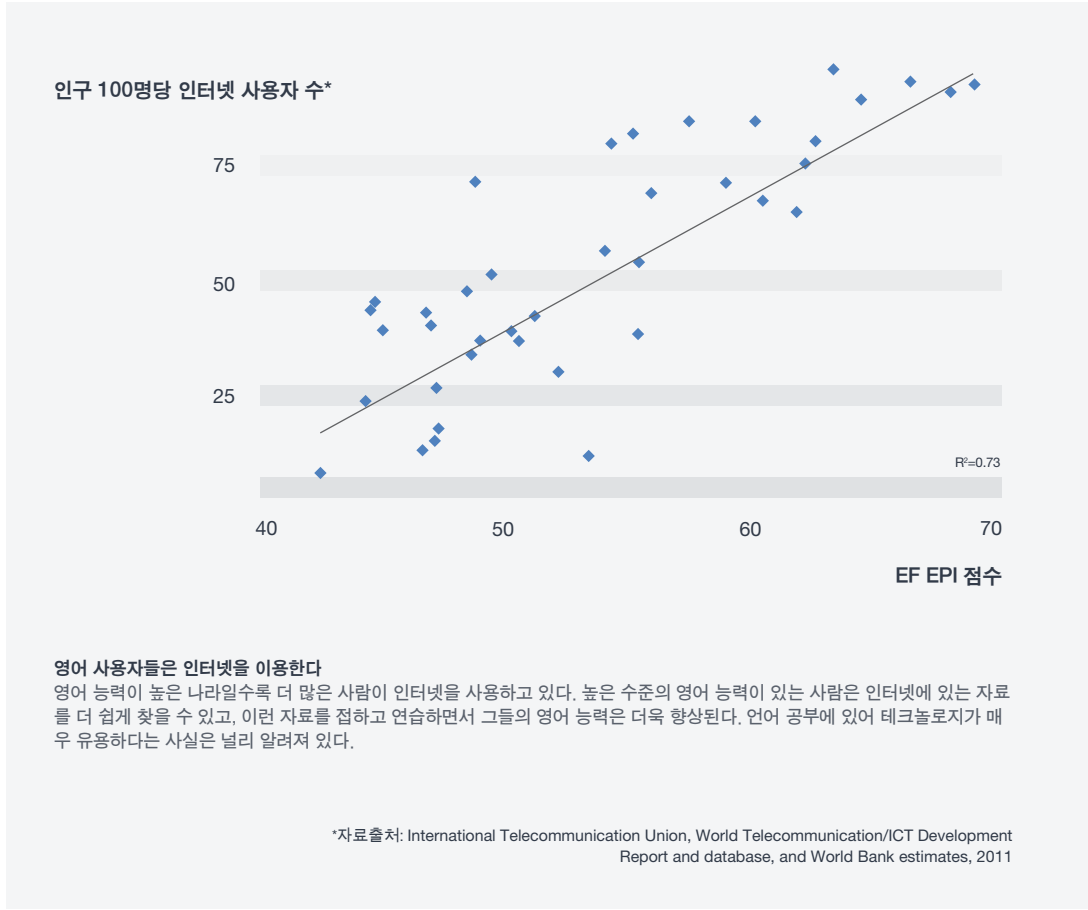
전체적인 영어 능력과 연구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 사이에는 정관계가 존재한다. 효과적인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학술지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고, 여러나라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오늘날 발표되는 과학 연구 기사 중 35%가 여러나라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이는 15년 전보다 40%나 증가한 수치이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나라는 이런 세계 지식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 어렵다.

\*자료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0

##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 인터넷

인터넷 사용자 중 27%가 영어 원어민으로 추산되나 이 수치는 세계적인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인터넷 웹페이지 중 절반이 영어로 되어 있었고 여러가지 유용한 서비스가 영어로만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대개 영어로 되어 있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들은 온라인으로 출판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미국 국회도서관과 두번째로 큰 대영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대규모 영어 문서 컬렉션을 점차 디지털화해서 많은 경우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연구원, 기업가, 학자에게는 충분한 영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술가, 음악가, 작가 등 예술가들 역시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 인터넷에서와 같이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은 대부분 영어로 소통한다.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인 인터넷과 세계의 언어인 영어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빠르게 교류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뒤쳐질 수 밖에 없다.



## 영어와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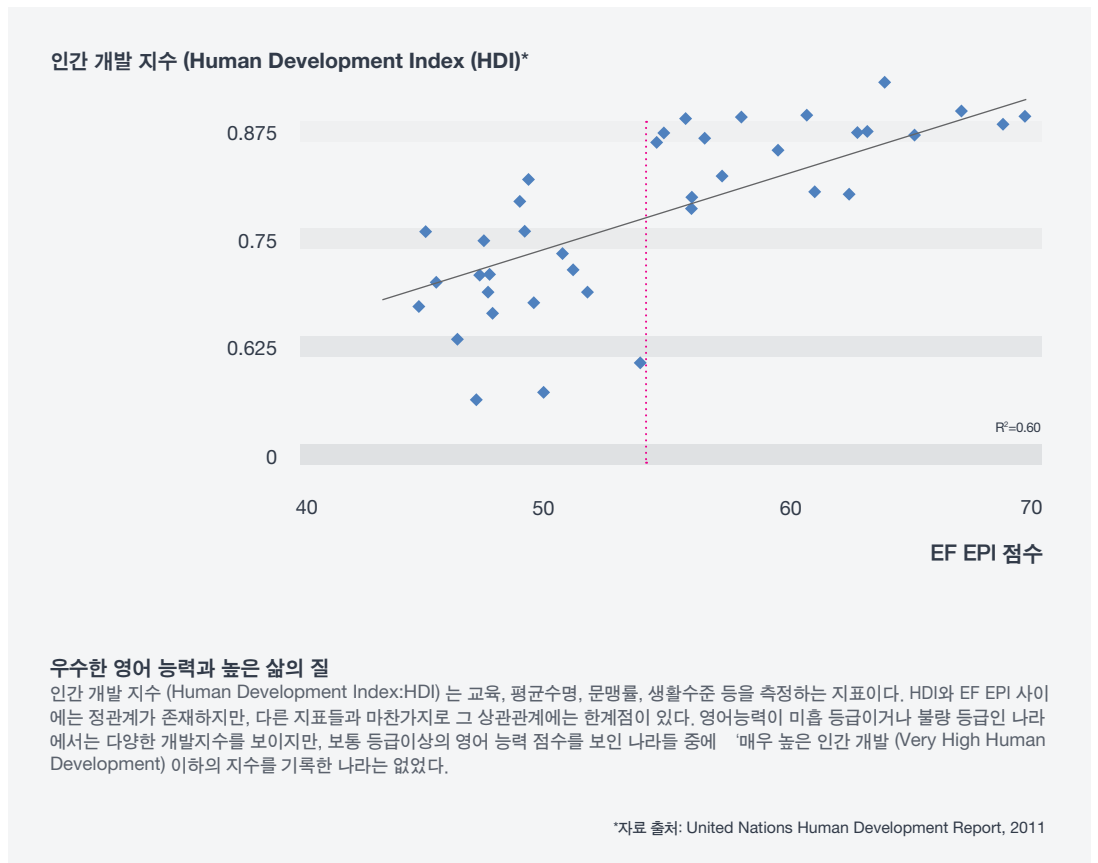
영어를 사치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영어

영어능력은 국가 경제력 발전의 기본 요소이며, 인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깨끗한 물, 의료시설, 교육시설, 치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어 교육이 불가능하다. 생존 자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가 충분히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규칙적이 되었을때 비로소 영어교육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능력을 주요 기초 과목 다음에 오는 '보너스' 능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취업과 전문 분야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 할것이다. 영어가 깨끗한 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과연 방정식보다 덜 중요한가?

영어능력을 사립학교 혹은 고등교육에서만 제공되는 특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고서는 오늘날 영어가 기본적인 필수 자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어를 국어나 산수만큼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식해 교육하고 테스트하도록 해야한다. 지난 15년 동안 영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져왔는지를 생각해볼 때,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취업할 나이가 되면 영어는 더욱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 되어 있을 것이다.







## 영어 공부

오늘날 영어  
사용자들의 75%가  
원어민이 아니다

### 영어는 더 이상 원어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도 급격하게 변천해왔다. 언어학자나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영어교육은 융통성없는 정확함이나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전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 75%가 영어 원어민이 아니다. 이는 영어가 더이상 영국인과 미국인에게 국한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대화가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이런 대화에서는 문법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화로, 많은 비원어민들은 다른 비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것이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한다. 원어민들은 잘못된 발음이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 중에 은어나 속담 등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비원어민들과 영어로 소통을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원어민보다 불리하다.

영어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기까지는 4-7년이  
필요하다

###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소통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의 영어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며, 이에 맞춰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검증할 때에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 세계의 학교들과 시험장들에서 이러한 변화가 실행되는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주입식 문법교육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미래의 일터에 훨씬 더 적합한 인재가 될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다국적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어권 국가 출신의 원어민들도 비원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듣기연습과 문장 재구성하기 연습을 해야할 것이다.

### 나이와 영어 습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실과 거짓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특정 나이가 지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아동기 후반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지만 성인이 되어도 매우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8-12세 어린이의 영어 습득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후 몇년간도 그 능력을 유지한다. 물론 어릴때 영어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오랜시간 동안 영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 외국어를 접한 아이는 소리나 말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더 열려있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아 외국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EF EPI에서 이러한 효과들을 측정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전문가들은 영어공부를 시작한 시기와 상관없이 어린이는 영어권 국가의 환경에서 4-7년을 살아야 또래 원어민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의 학문적 언어를 구사하고, 3-5년을 살아야 말하는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 영어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더라도 같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기르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영어능력 우수 등급의 국가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8년 이상 정규 영어교육을 시키고 훨씬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외국어공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영어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공부의 장점은 엄청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청소년과 성인은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하고 정신적 유연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교육과 사교육

대부분의 영어시험이 평가하는 것은 영어공부의 실제 목표인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다.

### 영어교육 개혁에 따른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영어는 공교육에서 점점 수학이나 과학처럼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학교 영어교육 시작시기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많은 나라들은 두가지 다른 영어교육 과정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학교를 수년간 다녔지만 구정책하에 영어를 배운적이 없는 십대 학생을 위한 교육과 신정책하에 영어를 일찍 시작하게 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어린시절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정책변화는 어린 세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짧은 시간에 성인층까지 전반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다. 특히나 어린이가 전체 인구 중 소수인 나라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교육정책을 개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국민 중 성인층 인구 전체가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인내심있게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그 기간에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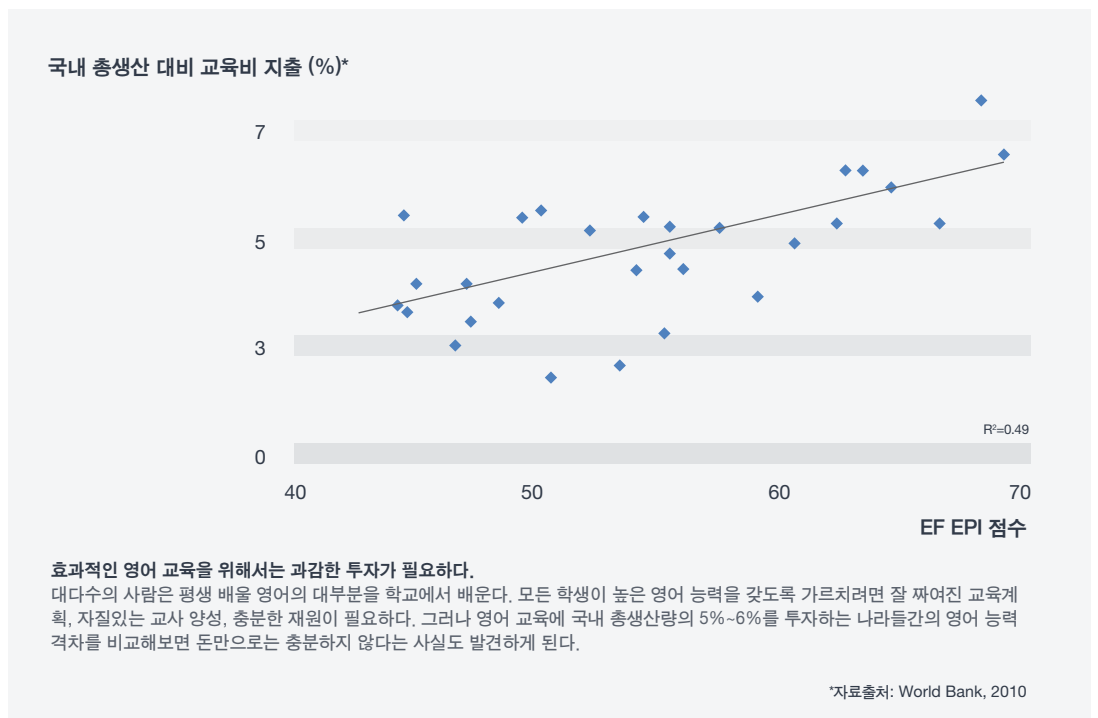
### 영어는 자국 언어와 병행할 수 있다

영어공부가 필수가 아닌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어가 우선시되거나, 영어의 지배력에 반감을 갖는 등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다국어 국가에서는 자국어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높은 영어능력도 함께 유지할 수 있으며, 핀란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또한 현재 미국과 영국이 영어교육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미국이나 영국 밖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 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공통 언어가 필요한데 영어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학생과 성인들이 영어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오늘날 영어 사교육 산업은 매우 번창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다양한 가격대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옵션이 있다. 영어를 필수 능력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를 사설교육기관에서 그룹레슨을 받게 하는데, 영어 사교육을 받는 아이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영어가 학교교육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 학창시절을 보낸 성인은 퇴근 후 사설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한다.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명문대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은 외국에서 시간을 보낸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회사는 직원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 이런 정식 영어 프로그램 외에도, 인터넷 영어 강좌, 비디오,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 영어 교육 산업은 표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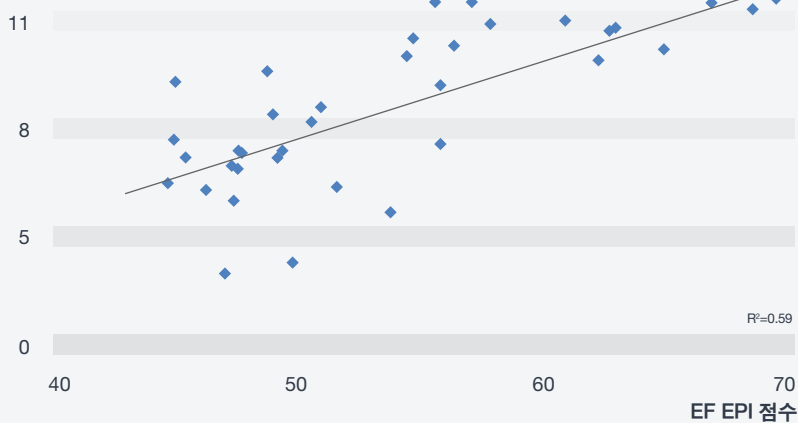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우는 수업방식에서부터, 24시간 언제나 가능한 맞춤형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까지, 오늘날 학생들은 영어를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고, 학교시스템이 적절한 영어 능력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을 정해서 가르치고,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기 전에 영어능력을 평가하면 학생들은 그 시스템을 따랐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영어 사교육 부문은 분열된 시장구조 속에서 학생들에게 극도로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영어교육 수준과 목표를 명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고,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직접 세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질 낮고 검증되지 않은 영어 공부 방법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쉽다. 너무 다양한 영어교육 방식에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영어에 대한 열의가 꺾일 수 있다. 선입견없이 개개인에 맞춘 영어교육이 된다면 좌절감을 없애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지도체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 현재 치뤄지는 영어 능력 시험들은 시대 착오적인 의미에서의 '실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는 각기 다른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평가방식으로, 10년 전 도입된 이래,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CEFR는 언어교육의 기준을 확립하는 첫번째 단계일 뿐이며, 그 이상의 각 능력등급의 정교한 세분화와 그에 맞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소통이 최근 영어교육의 주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어능력 평가시험들은 모두 CEFR의 기준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속에서 영어가 담당하는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실력'을 측정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영어 사교육 산업은 지나치게 균열되어 있다.

평균 학교 교육의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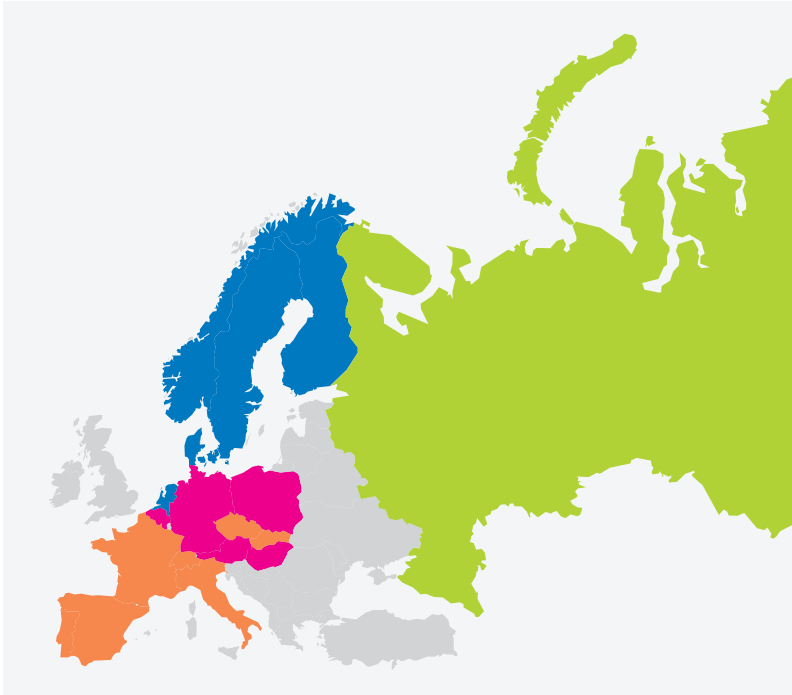


### 평균 의무 교육 연수와 영어능력의 상관 관계.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정책은 다르지만, 평균 학교교육기간과 영어능력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가 전체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그 이점을 누리하고자 하는 나라는 아이들이 영어를 완전히 익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기간동안 학교 교육을 지속시켜야한다.

\*자료출처: UNESCO, 2010

# 유럽 EF EPI 순위



랭킹	나라	EF EPI 점수	레벨
1	■ 스웨덴	68.91	우수
2	■ 덴마크	67.96	우수
3	■ 네덜란드	66.32	우수
4	■ 핀란드	64.37	우수
5	■ 노르웨이	63.22	우수
6	■ 벨기에	62.46	양호
7	■ 오스트리아	62.14	양호
8	■ 폴란드	60.39	양호
9	■ 헝가리	60.07	양호
10	■ 독일	59.08	양호
11	■ 체코	58.90	양호
15	■ 스위스	57.39	보통
16	■ 슬로바키아	56.62	보통
18	■ 스페인	55.89	보통
19	■ 포르투갈	55.39	보통
23	■ 프랑스	54.28	보통
24	■ 이탈리아	54.01	보통
29	■ 러시아	52.78	미흡

유럽의 다언어 문화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어능력을 갖춘 지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 유럽은 영어를 잘한다.

유럽은 영어에 강하다. 영어능력 최고 순위를 기록한 11 개가 모두 유럽에 있다. 또한 쉐겐 조약을 맺은 국가들(상대 국민의 출입국심사를 하지 않는 유럽국가들)은 모두 보통등급에서 우수등급까지의 영어능력을 기록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자국민이 모두 다국어 사용 국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국어 사용의 이점에 대한 확신은 교육과정, 기업문화, 유럽연합의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의 성인들은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과 접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영어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업무상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영어 능력을 보인다.

## 정치인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북유럽 국가의 성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외국 TV 프로그램이 자국어보다 더빙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정치인들은 국제무대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다. 대학생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표된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영어능력이 기본이 된 문화에서는 어린이도 영어교육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는 것을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

## 유럽 중부지역은 점점 더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럽 중부지역 국가들은 영어능력이 뛰어난 두번째 국가들이다. USSR 문화의 잔해와 USSR의 러시아어 강제 확산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부지역 국가의 성인들은 영어를 배웠다.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의 높은 영어능력은 더욱 눈에 띈다.

## 역경을 뛰어넘는 힘

유럽은 전체적으로 높은 영어 능력을 보이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오늘날 힘든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보통 등급의 영어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영어교육 개혁을 지속하여 이웃 국가들의 영어능력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유럽이 전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영어능력 사이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는 현재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양호 혹은 우수 등급의 영어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국가들 사이에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어 비용대비 효과적인 영어교육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이자 경제규모가 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발전가능성이 높다. EF 조사 결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영어 교육 수준은 유럽 평균이하인 탓에, 두나라 성인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에 참여할 능력이 떨어진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기량이 떨어지는 노동력을 갖는 것을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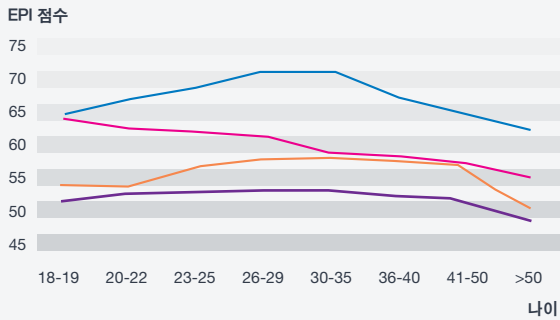
## 성별 격차



### 유럽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영어능력이 비슷하다

대다수의 유럽국가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영어능력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5개 국가 중 4개 역시 유럽에 있다. 헝가리는 남성의 영어실력이 여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유일한 나라로 영어능력지수가 여성보다 3점이나 높았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여성의 영어능력지수가 남성보다 무려 3.6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 차이



- EU 매우 높음
- EU 높음
- EU 평균
- 세계 평균

### 유럽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영어가 필요하다

유럽 전체를 보면 50세 미만의 사람이 50세 이상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만 생각보다 실력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 학교 수업시간에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성인들이 개인적으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영어능력 우수 등급인 나라에서는 41세-50세 중년층이 18세 청소년만큼 잘한다. 그러나 영어능력 보통 등급인 국가에서는 41세-50세 중년층이 18세 청소년보다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권 국가들의 EF EPI 순위



아시아 국가들은 모범적인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영어능력은 다른 나라들보다 저조하다.

## 모범적인 교육 그러나 평범한 영어 실력

일본과 한국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 문맹률이 낮고 영어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강조하지만 영어 실력은 OECD 국가 평균인 58.58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수학이나 읽기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이다. 기계적인 암기 학습, 외국인을 접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사제간의 수직적인 관계등으로 인한 회화연습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두 나라 정부는 다른 주요 과목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영어교육에서는 실패하고 있는지 원인을 검토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과거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한 성인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중요시하고 영어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공식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보통 수준이다. 개발도상국가 중에 그나마 보통 수준의 영어를 하는 나라는 몇개국 되지 않지만 이 두 나라는 실력있는 교사 양성에 힘을 실어 이미 배분되어 있는 영어교육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공용어로서의 영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 능력이 우수한 나라들이며 영어가 한 국가 내 각기 다른 집단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말레이시아계,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뒤섞여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에서 영어는 국제적인 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세 민족간의 공통 언어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졸업시 영어능력 시험을 치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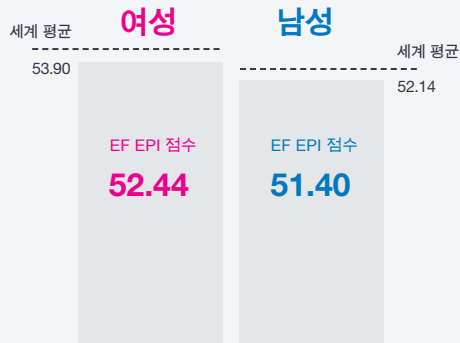
홍콩의 영어 실력은 영어가 공식 언어인 동아시아 국가 중 많이 뒤쳐지는 수준이다. 2011년의 조사결과 과반수의 성인이 영어보다 북경을 더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영어와 북경어 둘 다 홍콩인에게는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외국어가 두개 있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것은 아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영어나 북경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의 노력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중국은 영어교육에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엄청난 정도로 언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경어를 국어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영어 교육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전세계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약 10만 명의 원어민 교사가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EF EPI 점수로 알 수 있듯이 보통 이상의 영어를 하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이미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과 성인—특히 공공부문 종사자—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직종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의 직장인들이 국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영어 실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EF EPIc 보고서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www.ef.com/epi/](http://www.ef.com/epi/)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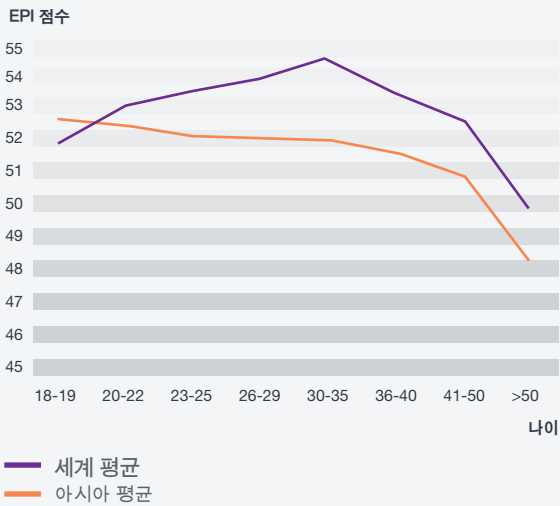


## 성별 격차



아시아 국가에는 여성의 영어능력이 남성보다 조금 높다. 나라마다 사회적, 경제적 차이는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성별 영어능력 차이를 보면 여성의 영어실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대부분 1점 차이로 미세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더 높은 영어능력을 보인다. 중국의 여성만이 남성보다 3점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남성이 더 높은 나라는 태국이지만 약 0.2점의 아주 경미한 차이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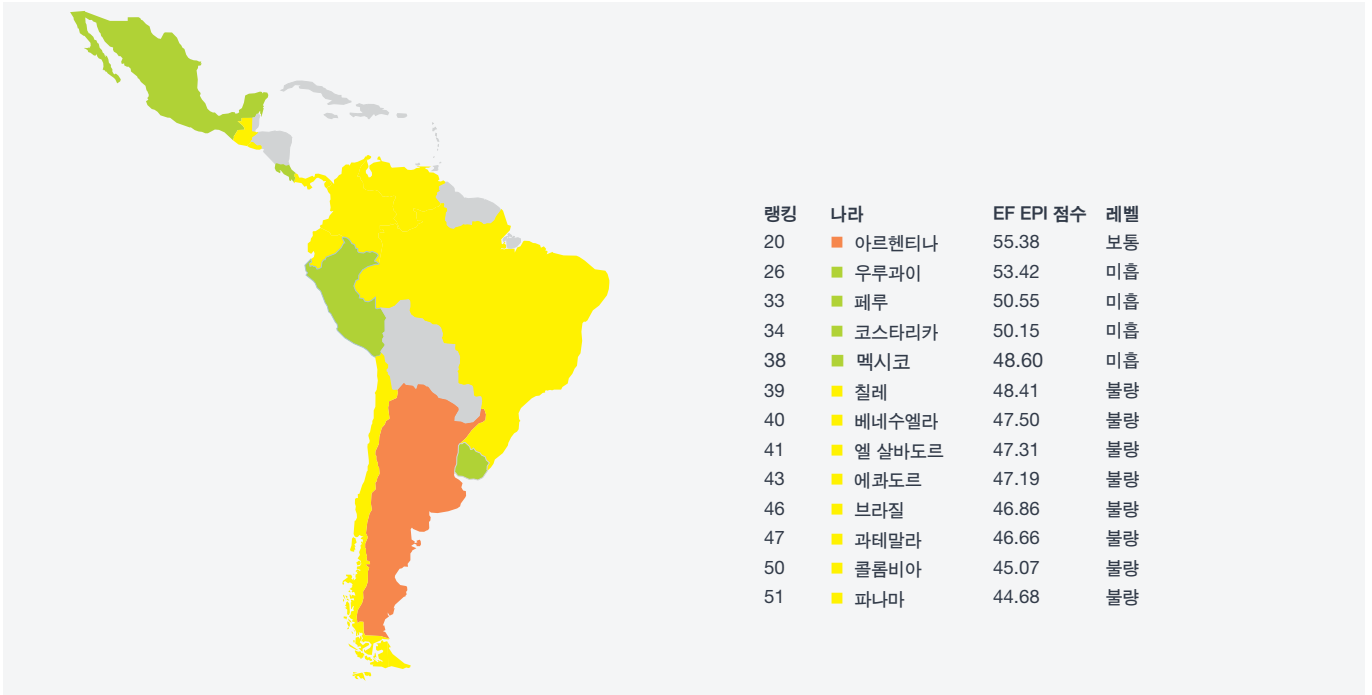
## 세대 차이



아시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영어 능력이 조금씩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그 이후 연령대로 갈수록 영어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18-19 세 청소년들의 뛰어난 영어 능력은 학교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영어 편성 시간을 늘린 산물인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국가의 성인들은 일터에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의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모든 아시아 국가가 그런것은 아니다. 아시아 각 국가별 영어능력 평가정보는 국가별 보고서에 나와 있다.



# 라틴 아메리카의 EF EPI 순위



평균 이하의 학교 수준과 형평성이 라틴아메리카를 영어능력 하위권 지역으로 만들었다.

##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어가 국제 언어 역할을 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영어능력은 매우 낮다. 이는 스페인어가 이 지역 의사소통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어를 통해 무역, 외교, 여행 산업 등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 부여가 약할 수 밖에 없다.

위의 결론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 2009 년 발표한 PISA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15 세 청소년의 48%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독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2%나 되었다.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한데 당연히 영어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 공교육 기반이 약해 영어능력 향상이 어렵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공립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 영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다. 2007년 브라질에서 230만 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식언어인 포르투갈어 읽기 능력을 시험한 결과 52%의 학생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도 능력 차이가 심했는데 수도권인 브라질리아 지역의 어린이 중 32%가 읽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반면 74%나 되는 어린이가 읽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학생의 민족성이 아이의 읽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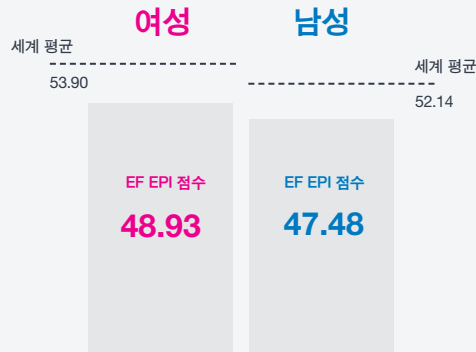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견고한 기초교육이 영어 능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 우수한 영어 능력 분석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보통 등급의 영어능력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식자율은 97%로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89.9%보다 높으며, 평균 학교교육연수는 15.1년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인 13.1년보다 2년이나 길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이후로 초, 중, 고등학교 취학율이 높았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주변 국가에서는 6학년까지 교육받는 아이가 전체의 50%도 되지 않아 비교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경제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았다. 또한 유별나게 높은 초, 중, 고등학교 재수강률과 중고등학교 자퇴생의 증가는 아르헨티나가 소득수준이 비슷한 동유럽국가들만큼 높은 영어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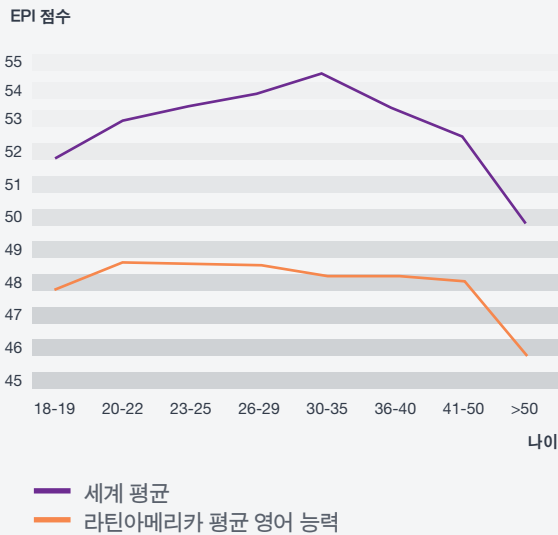
## 성별 격차



### 라틴아메리카의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영어능력을 갖고 있다

EF EPI 에서 조사한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남성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영어능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성별 영어능력 차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중 절반 정도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가 뚜렷한 나라는 2.3점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와 3.4점의 페루뿐인데 이 두 나라의 경우 여성의 영어 능력이 더 뛰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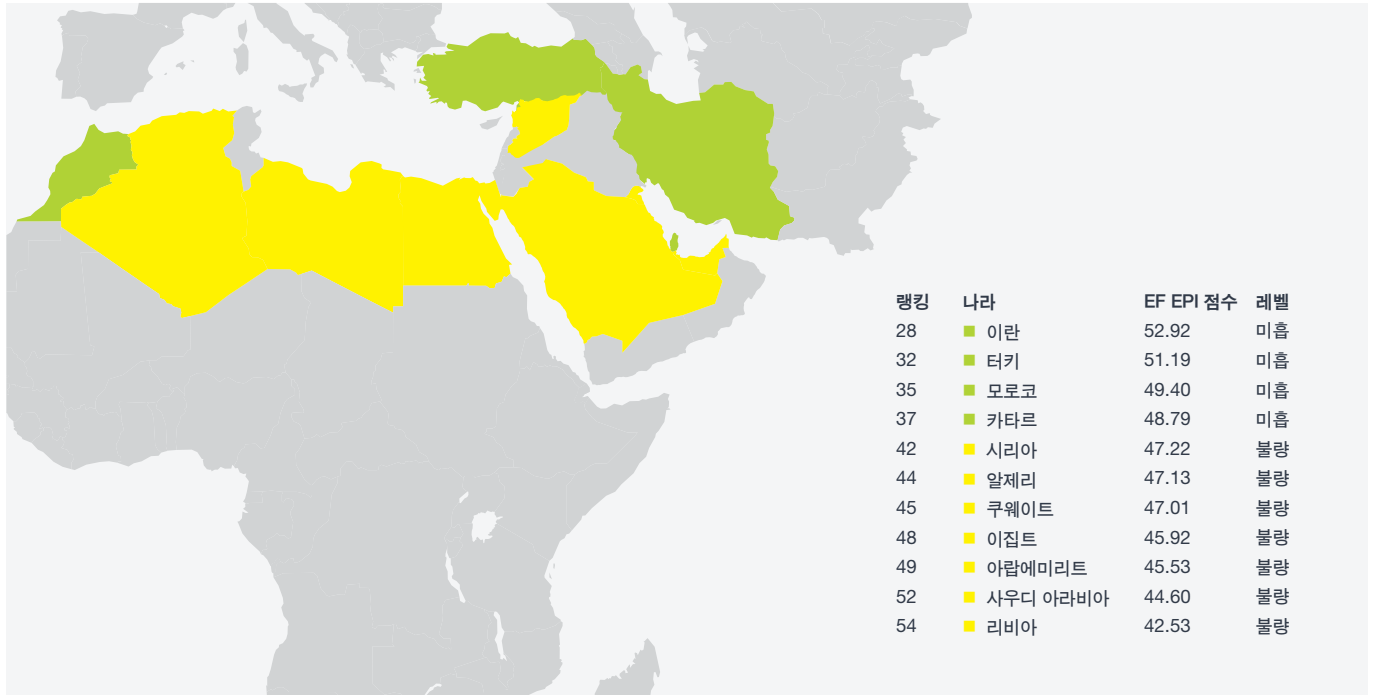
## 세대 차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연령대와 영어능력의 상관관계가 없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연령별 영어능력 차이는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작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생, 직장인 모두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학교에서도 어린이에게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인들도 직장생활동안 영어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는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영어의 기본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에 투자할 시간과 열정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18-19세 중국인은 같은 나이의 라틴아메리카인보다 조금 낮은 영어실력을 갖고 있지만 30-35세 중국인은 영어능력 점수 51.61점을 기록하여 같은 연령대의 라틴아메리카인들보다 3점이나 높다.



#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의 EF EPI 순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변화는 이 지역의 교육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 과도기에 있는 지역

지난 1년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은 실각했지만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인권과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 40년간의 교육 개혁

지난 수십년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동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교육에 투자했지만 학생의 평균 학교 교육연수가 5.4년으로 비교대상인 다른 지역 나라들의 7.2년보다 짧다. 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1960년대부터 워낙 낮은 수준(학교를 다니는 평균 연수가 0.5-2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두 지역의 취학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성별에 관계 없이 높으며 비록 북아프리카의 식자율은 아직도 낮기는 하지만, 두 지역의 식자율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 아직 부족한 양질의 교육

지난 10년간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아졌지만 아직 교육의 질은 고르지 못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중 전세계 청소년의 읽기와 수학 능력을 비교하는 PISA나 TIMSS같은 시험에서 국제 평균을 넘는 국가는 없다.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이란과 터키는 EF EPI에서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제대로된 기본교육 없이는 영어능력이 향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젊은 인구 증가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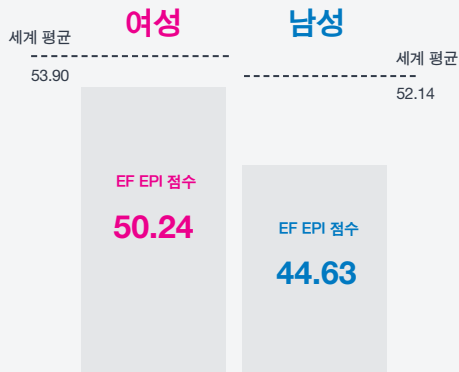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는 인구 중 60%가 30세 미만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 학교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향상된 영어교육을 포함하여 교과과정 개혁을 실시하면 노인층이 많은 나라에 비해 성인 노동력에 미치는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다.

## 영어 교육에 대한 약속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21세기에 젊은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국민 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는 못미친다. 영어 능력은 사회 변화를 이끌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효과적인 교육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의 영어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공립학교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자격있는 영어 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에게 영어 교사 훈련을 받게 하고 그들이 교사로 활동하도록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별 격차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남성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낮은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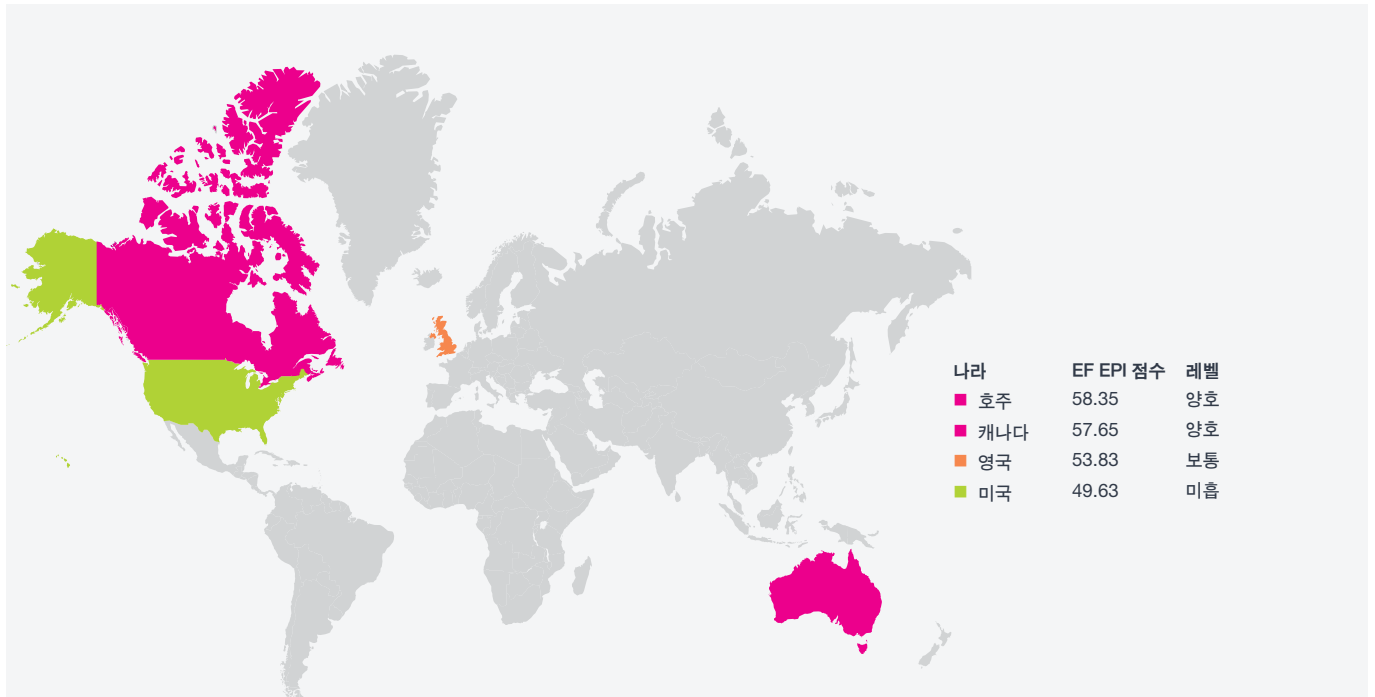
전세계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만큼 여성과 남성의 영어능력 차이가 큰 곳은 없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여성은 남성보다 영어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UN의 성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EF EPI에 포함된 국가 중 이 지역 여성의 건강, 인권,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영어능력이 월등히 뛰어난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여러가지 기회들을 더 넓은 세상에서 찾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세계 평균



#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성인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이민자들이 극과극의 영어 능력을 보이는 것은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와 개인별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성인 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

EF는 영어권 국가에 살면서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수집하였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국에서 일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은 후, 십대 후반 혹은 성인이 되어 영어권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EF EPI에 포함된 다른 그룹들과는 매우 다르다. 이 그룹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없고, 이들의 출신 국가, 이민 연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오기 전 이들의 영어능력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자료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능력이 영어권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대상인 네개의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에는 인디아, 파키스탄,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이 많으며, 호주에는 인도, 중국,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많으며, 캐나다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필리핀, 인도, 중국 출신인 반면, 미국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다.

## 현지 사회에서의 이민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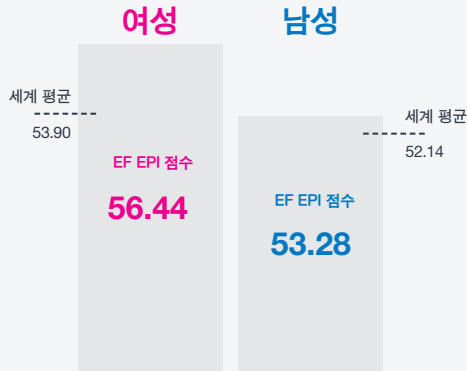
호주와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는 이민자들은 영국과 미국의 이민자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호주는 인구의 25%, 캐나다는 19%가 외국인) 이민자를 교육시키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로 따지면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이민자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훨씬 더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다.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이민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주장한다.

## 영어 배우는 성인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단지 낮은 수준의 영어능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갖춰야할 수준의 영어능력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다. 영어를 배우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 능력이 가장 낮은 미국의 경우 확실히 그러하다. 라틴아메리카는 어느 지역보다 낮은 영어능력과 불평등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계속 그 나라에서 살던, 이민을 가던 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간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 빈곤가정이나 소수민족 출신의 경우 그 시간은 더욱 오래 걸릴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나라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인지한다면 이민자를 향해 '영어 배우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대신 그들을 위한 적절한 영어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 쓸 것이다.

## 성별 격차



###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영어를 더 빨리 배운다

영어권국가에서 영어를 배우는 여성은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보다 영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현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영어 능력이 뛰어난 호주를 제외하고 개별 국가들에서도 발견된다.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5-4점 더 높다. 이런 차이는 출신국가의 성별 영어능력 차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캐나다, 영국, 미국의 여성과 남성 이민자의 영어능력 차이는 그 어떤 나라의 성별 차이보다 더 큰데, 이는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나 멕시코 내의 성별 차이 (인도 0.45점, 멕시코 0.33점)보다 훨씬 크다.

이런 능력 차이는 여성과 남성 이민자의 이민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자의 40%는 10년 이하의 정규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영어능력이 낮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며 이들 중 68%가 남성이다. 미국 이민자의 나머지 60%는 평균 15년의 정규교육을 받았는데 그들 중 55%만이 남성이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이민 오기전의 교육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 할 확률이 더 높다. 또한, 영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성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는 여성의 영어 능력은 갈수록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 결론

## 세계화된 경제에서 영어 능력은 필수이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화된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예전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갖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 각국 정부와 개인은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영어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적다. EF EPI는 영어교육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모든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고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라.
-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하라.
- 영어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를 많이 배출하라. 영어를 잘 못하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하는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이다.
-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라. 정부와 각 가정들이, 모든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도록 권장하면 할수록, 아이들도 여러가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다언어 문화는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식하기는 쉽다. 영어능력이 우수한 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이런 다언어 문화를 즉각적으로 느낀다고 한다.
- 다수의 성인이 학교에서 제대로된 영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라. 영어능력이 낮아 소득이 낮고 생활이 힘든 성인들은 영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수단과 하나의 외국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성취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회사내 장기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나 성인 교육 지원제도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술의 발달은 성인들이 자신의 여가시간에 맞추어 영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 공무원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라. 각 나라 정부는 공무원부터 영어교육을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직장인의 영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나 조직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다.

-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사전달의 기술과 전략을 가르치라. 영어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정확한 문법이나 원어민 발음의 흉내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창성보다 문법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은 듣기와 말하기 연습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 정확한 문법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하라. 이런 체계화된 시험이 개발되고 도입되면 학생의 좌절감이나 불만을 줄일 수 있고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확한 문법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 표준화된 시험 방식이 필요하다.

## 국제적인 영어능력 시험

전세계인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게 되면 각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능력 평가기준과 학습목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게 된다. 전 세계 아이들의 과학, 수학, 읽기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TIMSS와 PISA시험이나 청소년의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유럽연합의 SurveyLang시험과 같이 EF EPI는 전세계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영어교육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연락과 공조를 환영한다.



# EF EPI 에 대해서

본 보고서는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의 제 2판이다

## 방법론

EF English Proficiency Index는 매년 수십만 명이 치르는 3종류의 EF 영어시험을 통해 각 국가의 성인 평균 영어능력을 평가한다. 2종류의 시험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에서 칠 수 있고 3번째 시험은 EF영어코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치는 시험이다. 3가지 시험 모두 문법, 어휘력, 읽기, 듣기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3번째 시험은 30문제로 된 '적응적' 시험으로서 한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맞췄는지 오답이었는지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방식의 시험이다. 다른 두가지 시험은 60-70문항의 일반적인 시험이다. 모든 점수는 EF 코스 수준에 맞춰 채점된다. 모든 시험은 학생이 자기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치게 된다. 학생이 이 시험을 위해 따로 베풀어야 할 공부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이유는 없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상을 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시험 대상

EF EPI 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조합해 산출되었다. 52개국과 2개 자치령 166만 8,768명 응시자의 점수와 4개의 영어권 국가에 사는 9만 1,379명의 성인 영어 학습자의 점수가 포함되었다. 응시자 약 25%의 나이, 성별,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400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한 국가만이 이 지표에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응시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3가지 시험 중 하나라도 각 100명 이하의 응시자가 있었던 국가는 제외하였다.

각 시험의 응시자들은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표성있는 표본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자신의 영어 능력에 만족하고 자신있는 사람들은 영어수업을 받을 의향이 없을 터이고, 영어를 배우고 싶거나 자신의 영어 능력이 궁금한 사람만이 이 시험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영어능력지수가 전체 인구의 수준보다 낮게 왜곡되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시험이 인터넷 상으로 치뤄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사람과 익숙치 못한 사람은 자동으로 시험대상에서 배제됐다. 자연히, 인터넷 사용이 적은 나라에 미친 영향이 가장 강하다. 이러한 편향성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이런면에서는 영어능력지수가 전체 인구의 수준보다 높게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 점수 계산법

한 국가의 EF EPI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시험점수를 표준화시켜 전체 문항 수에 따라 퍼센트로 각 시험 점수를 계산했다. 한 국가의 점수는 모든 시험에 비중을 똑같이 두고 3가지 시험의 평균으로 계산했다.

각 나라는 이 점수를 바탕으로 영어능력 등급을 부여받았는데, 각 등급에 따라 비슷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각 등급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와 EF 프로그램 레벨에 맞췄다. 영어능력 우수등급은 CEFR B2 레벨과 동등하고,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모두 CEFR B1 레벨과 같으며, 각각의 레벨에 상응하는 EF 코스별 레벨이 있다. 불량 등급은 CEFR A2 레벨과 같다. 각 등급별 영어사용자의 능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별, 연령별 점수 역시 전체 점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며 각 시험 결과에 같은 비중을 두었다. 지역별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모든 응시자에게 같은 비중을 두어 응시자가 많았던 나라는 적었던 나라보다 전체적인 지역 점수를 산출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EF Education First

EF Education First 는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허문다는 미션하에 1965년 설립되었다. EF는 어학원, 대학 학위, 어학연수, 문화체험 등을 전문으로 하며, 전세계에 400여개의 학교와 2천만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EF English First 와 EF EnglishTown 은 EF Education First 의 일부로 전세계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계 1,500개 기업의 영어교육을 돕고 있으며, 또한 EF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언어교육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f.com/epi](http://www.ef.com/epi) 와 [www.englishtown.com](http://www.englishtown.com) 에서 볼 수 있다

## CEFR 레벨과 설명서

### 능숙한 영어 사용자

- C2** 읽고 들은 모든것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채널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를 재구성하고, 또 일관성 있는 설명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 C1** 길고 어려운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들도 인식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구사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의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독립적인 영어 사용자

- B2**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어느정도 유창함과 자연스러움이 있어 별 막힘없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뚜렷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일정한 주제에 대한 관점을 여러 장단점을 열거하며 표명할 수 있다.
- B1** 직장, 학교, 여가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 기본 영어 사용자

-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 (아주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 가족, 쇼핑, 지리, 직업)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신상정보,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A1** 구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소개를 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방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Council of Europe 인용구

2012년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에서 B2사이의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최하 수준인 A1이나 최고 수준인 C1과 C2에 해당되는 나라는 없었다.

# 부록

## 2011년 EF EPI와 차이점

2011년 봄 처음 EF EPI가 발표된 후 수집한 각계의 반응을 토대로 두 가지 중요한 면에서 방법론을 수정하였다.

첫째, 교육관계자들은 각 능력 등급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EF EPI도 2011년과 똑같은 5개의 능력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을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와 연결시켜 분류하였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공인받은 틀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교육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이 EF EPI 결과를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EF EPI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보는 Council of Europe 에서 구할 수 있다.

둘째, 2011년 EF EPI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4가지 영어시험 중 하나를 배제하였다. 배제한 시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듣기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완료하지 않았고, 해당 듣기 영역을 채택하여 완료한 경우에도 이 영역의 점수 배점이 적어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 EF EPI에 모두 사용된 나머지 세가지 시험은, 듣기 능력에 훨씬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2012년 지수에서 눈에 띄게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국가들이 있다면, 이는 듣기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번 측정 이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큰 순위 변동은 없었다.

질문 및 의견은 [seonjoo.yoon@ef.com](mailto:seonjoo.yoon@ef.com) 이나 +822 3452 3780 에 연락바랍니다

# EF EPI 순위

## 제1판과 제2판의 차이

나라	제1판 순위 (07-09)	제2판 순위 (09-11)	순위 변화	제1판 점수 (07-09)	제2판 점수 (09-11)	점수 변화
알제리	—	44 (올해 첫 추가)		—	47.13 (올해 첫 추가)	
아르헨티나	16	20	-4	53.49	55.38	1.89
오스트리아	6	7	-1	58.58	62.14	3.56
벨기에	7	6	1	57.23	62.46	5.23
브라질	31	46	-15	47.27	46.86	-0.41
칠레	36	39	-3	44.63	48.41	3.78
중국	29	36	-7	47.62	49	1.38
콜롬비아	41	50	-9	42.77	45.07	2.30
코스타리카	22	34	-12	49.15	50.15	1.00
체코	19	11	8	51.31	58.9	7.59
덴마크	3	2	1	66.58	67.96	1.38
도미니카 공화국	33	—	—	44.91	—	—
에콰도르	37	43	-6	44.54	47.19	2.65
이집트	—	48 (올해 첫 추가)		—	45.92 (올해 첫 추가)	
엘살바도르	28	41	-13	47.65	47.31	-0.34
핀란드	5	4	1	61.25	64.37	3.12
프랑스	17	23	-6	53.16	54.28	1.12
독일	8	9	-1	56.64	60.07	3.43
과테말라	27	47	-20	47.80	46.66	-1.14
홍콩	12	25	-13	54.44	53.65	-0.79
헝가리	20	8	12	50.80	60.39	9.59
인도	30	14	16	47.35	57.49	10.14
인도네시아	34	27	7	44.78	53.31	8.53
이란	—	28 (올해 첫 추가)		—	52.92 (올해 첫 추가)	
이탈리아	23	24	-1	49.05	54.01	4.96
일본	14	22	-8	54.17	55.14	0.97
카자흐스탄	44	—	—	31.74	—	—
쿠웨이트	—	45 (올해 첫 추가)		—	47.01 (올해 첫 추가)	
리비아	—	54 (올해 첫 추가)		—	42.53 (올해 첫 추가)	
말레이시아	9	13	-4	55.54	57.95	2.41
멕시코	18	38	-20	51.48	48.6	-2.88
모로코	—	35 (올해 첫 추가)		—	49.4 (올해 첫 추가)	
네덜란드	2	3	-1	67.93	66.32	-1.61
노르웨이	1	5	-4	69.09	63.22	-5.87
파키스탄	—	17 (올해 첫 추가)		—	56.03 (올해 첫 추가)	
파나마	40	51	-11	43.62	44.68	1.06
페루	35	33	3	44.71	50.55	5.84
폴란드	10	10	0	54.62	61.75	7.13
포르투갈	15	19	-4	53.62	55.39	1.77
카타르	—	37 (올해 첫 추가)		—	48.79 (올해 첫 추가)	
러시아	32	29	3	45.79	52.78	6.99
사우디아라비아	26	52	-26	48.05	44.6	-3.45
싱가포르	—	12 (올해 첫 추가)		—	58.65 (올해 첫 추가)	
슬로바키아	21	16	5	50.64	56.62	5.98
대한민국	13	21	-8	54.19	55.35	1.16
스페인	24	18	6	49.01	55.89	6.88
스웨덴	4	1	3	66.26	68.91	2.65
스위스	11	15	-4	54.60	57.39	2.79
시리아	—	42 (올해 첫 추가)		—	47.22 (올해 첫 추가)	
대만	25	30	-5	48.93	52.42	3.49
태국	42	53	-11	39.41	44.36	4.95
터키	43	32	11	37.66	51.19	13.53
아랍에미리트	—	49 (올해 첫 추가)		—	45.53 (올해 첫 추가)	
우루과이	—	26 (올해 첫 추가)		—	53.42 (올해 첫 추가)	
베네수엘라	38	40	-2	44.43	47.5	3.07
베트남	39	31	8	44.32	52.14	7.82

# 참조

제작에 도움을 준 Kate Bell, Eric Feng, Dr. Christopher McCormick, Ming Chen, Ku Chung, Britt Hult 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Auguste, S., Echart, M., & Franchetti, F. "The Quality of Education in Argentin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http://www.iadb.org/res/laresnetwork/files/pr294finaldraft.pdf>

Barro, Robert and Jong-Wha Lee.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Adult Population." World Bank, 2000. <http://go.worldbank.org/8BQASOPK40>

Canagarajah, A.S. Resisting Linguistic Imperialism in English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Carnoy, M. "Globalization and Educational Reform: what planners need to know," Fundamentals of Educational Planning. Paris: UNESCO, 1999. <http://www.uned-illesbalears.net/esp/desarrollo2.pdf>

CIA. "The World Factbook", 20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Crystal, D.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Collier, V.P. "The Effect of Age on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for School", New Focus, the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 1988, Number 2. [http://www.thomasandcollier.com/Downloads/1988\\_Effect-of-Age-on\\_Acquisition-of\\_L2-for-School\\_Collier-02aage.pdf](http://www.thomasandcollier.com/Downloads/1988_Effect-of-Age-on_Acquisition-of_L2-for-School_Collier-02aage.pdf)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OECD Stat Extracts, 2009.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2009>

Eurydice.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Brussels: Eurydice European Unit, 2008.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documents/key\\_data\\_series/095EN.pdf](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documents/key_data_series/095EN.pdf)

Global English Corporation. "Globalization of English 2010 Report", 2010. [http://static.globalenglish.com/files/reports/GlobEng\\_ResearchSt\\_GlobEngRep\\_EN\\_US\\_FINAL.pdf](http://static.globalenglish.com/files/reports/GlobEng_ResearchSt_GlobEngRep_EN_US_FINAL.pdf)

Gonzales, P. Project Officer. "Highlights From TIMSS 2007: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of U.S. Fourth- and Eighth-Grade Student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2009. <http://nces.ed.gov/pubs2009/2009001.pdf>

Graddol, D.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2006. <http://www.britishcouncil.org/learning-research-english-next.pdf>

Graddol, D. "English Next India". London: British Council, 2010. <http://www.britishcouncil.org/learning-english-next-india-2010-book.htm>

Ha, P. L. "Toward a Critical Notion of Appropriation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sian EFL Journal, Volume III, Issue 3, Article 3. 2005. [http://www.asian-efl-journal.com/September\\_05\\_plh.php](http://www.asian-efl-journal.com/September_05_plh.php)

Hakuta, K., Goto Butler, Y., & Witt, D. "How Long Does It Take English Learners to Attain Profici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Linguistic Minority Research Institute Policy Report, 2000-1. <http://www.stanford.edu/~hakuta/www/research/publications/%282000%29%20-%20HOW%20LONG%20DOES%20IT%20TAKE%20ENGLISH%20LEARNERS%20TO%20ATTAIN%20PR.pdf>

Hakuta, K. "A Critical Period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Bailey, J. Bruer, F. Symons & J. Lichtman (eds.), Critical Thinking about Critical Periods. (pp. 193-205). Baltimore: Paul Brookes Publishing Co., 2001. <http://www.stanford.edu/~hakuta/www/research/publications/%282001%29%20-%20A%20CRITICAL%20PERIOD%20FOR%20SECOND%20LANGUAGE%20ACQUISITION.pdf>

Human Development Index Trends (1980-200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ttp://hdr.undp.org/en/statistics/data/motionchart/>

Lewis, Paul.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6th edition, 2009. <http://www.ethnologue.org>

McKay, S. L.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ENA Development Report. "The Road Not Traveled: Education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8. [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04\\_02\\_08\\_world\\_bank\\_arab\\_education2.pdf](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04_02_08_world_bank_arab_education2.pdf)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and Nationality April 2010 to March 2011".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http://www.ons.gov.uk/ons/publications/re-reference-tables.html?edition=tcn%3A77-235204>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The High Cost of Low Educational Performance", OECD, 2010. <http://www.oecd.org/dataoecd/11/28/44417824.pdf>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 "International Science Ranking", SCImago Lab 2009. <http://www.scimagojr.com/countryrank.php>

Svartvik, J. & Leech, G. English: One Tongue, Many Voi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UNESCO "The Education For All by 2015 Global Monitoring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5/001547/154743e.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0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09. [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08/ois\\_yb\\_2008.pdf](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08/ois_yb_2008.pdf)

Willms, J., Tramonte, L., Duarte, J., & Bos, S. "Assessing Educational Equality and Equity with Large-Scale Assessment Data: Brazil as a Case Study"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ducation Division, 2012.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6744258>

World Bank, "Gender Inequality Index and related indicators".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http://hdr.undp.org/en/media/HDR\\_2011\\_EN\\_Table4.pdf](http://hdr.undp.org/en/media/HDR_2011_EN_Table4.pdf)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





# **EF EPI**

##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2012

미디어 담당자

질문 및 의견은 [seonjoo.yoon@ef.com](mailto:seonjoo.yoon@ef.com) 이나  
+822 3452 3780 에 연락바랍니다

[www.ef.com/epi](http://www.ef.com/epi)





Education First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www.ef.com/epi](http://www.ef.com/epi)